도내 미분양 아파트 급증

전년동월대비 15.6% ↑
6월 현재 2745호 달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아파트는 2,745호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말 2,374호 보다 15.6%(371호)가 증가한 수치다.

전국 미분양아파트 증가율을 보면 제주 104.1%(122→249호), 부산 25.1%(1,253→ 1,568호), 경 북 20.7%(4,658→ 5,621호), 충 북 17.7%(4,171→4,907호)에 이어 전북은 5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15년 12월만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1,227호에 불과했지만 6월 현재 2,745호에 달하면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준공이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수는 2016년 6월 930호로서 지난 5월 905호 대비 25호(2.8%)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35.3%(416→563호), 충북(215→231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에 신규 아파트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지역에서라도 입지, 면적, 가격 등 조건별 차별화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 성적이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주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줄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완주군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복날을 이틀 앞두고 중복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관계자가 닭고기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직구 앞지른 역직구
美·日로 확산… 화장품·패션 호평

역직구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미국·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역직구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중국인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일본이 차지하는 역직구 거래액 비중은 2016년 1분기 기준 7.1%, 5.3% 정도다. 같은 기간 일본의 거래액은 전년동기(2015년 1분기) 대비 30.6% 증가했다.

현재 중국이 전체 거래액의 75.9%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및 한국 의류 품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한국 제품들이 역직구를 통해 미국, 일본에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본 소비자가 역직구를 통해 주로 구입하는 제품은 화장품과 패션·의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해외직구·역직구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패션·의류와 화장품이 주요 판매 품목이며, 가전·전자·통신제품은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패션·의류 품목에 대한 역직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뷰티·패션이 세계시장을 급격히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셜커머스업체 및 오픈마켓들은 역직구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사이트 운영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우선 G마켓은 역직구 사이트 '글로벌샵'을 통해 화장품, 패션잡화, 스포츠용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K뷰티와 패션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포츠·피트니스 등의 새로운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북유럽, 중동 등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도 역직구 사이트를 오픈하고, 화장품·패션 상품군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광석 삼정KPMG 수석연구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주요 유통·소비재 기업은 위기를 맞았지만, 역직구를 통해 기회를 맞이했다"며 "역직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국내 유통·소비재 기업은 '소매의 온라인화' 및 '온라인쇼핑 기업의 국제화'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홈플러스, 올어바웃푸드 스페셜 존 운영

홈플러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을 결합한 O2O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O2O 채널 '올어바웃푸드를' 매장 내 스페셜 존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트렌디 레시피 사이트 올어바웃푸드는 지난 2014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올 7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 약 350만 명, 일 평균 1만5000뷰, 현재까지 제공 레시피만 1200여 건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올어바웃푸드 스페셜 존을 구성하고 초복 시즌 4일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복 대비 30% 관련 상품 매출이 상승했고 AAF 사이트 내 보양식 관련 레시피 역시 40% 가량 뷰어가 증가했다.

홈플러스 올어바웃푸드는 ▲요리 레시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홈플러스 온라인쇼핑과 연결돼 있어 레시피에 해당하는 식재료까지 바로 구입 가능하며 ▲다양한 주제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트렌디 레시피를 제공하고 ▲음식 사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심플하고 깔끔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적용했으며 ▲데스크탑 및 모바일 웹 버전 외 최근 모바일 앱(App)을 출시, 앱에만 탑재된 귀로 듣는 레시피 오디오와 관심 요리를 맞춤 추천해주는 기능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초복에는 빨라진 무더위와 맛 집에서 줄 서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싱글족과 초보 주부를 위해 삼계탕 레시피를 비롯해 해신탕과 같은 보양식 레시피를 제공하고 관련 재료를 매장에 특별 존으로 구성했다. /뉴시스

전북銀, '생생 樂 페스티벌' 성황

도내 고교밴드 본선진출 8개 팀 확정… 내달 8일 경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2일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 올라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7회 '2016 생생 樂 페스티벌' 예선을 JTV아트스페이스에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선에는 도내 고교밴드 1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고, 본선진출 8개 팀(동암·해성·신흥·완주·전라고, 성심·전주여고, 정읍 배영고)이 최종 확정됐다.

본선은 내달 1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JTV FM 장혜라의 행복발전소' 특집 공개방송으로 펼쳐진다.

본선무대는 각 학교 대표밴드와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교대항 경연으로 진행되며, 준비과정을 통해 상호간에 소통하는 학교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참된 인성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데이브레이크, 에이프릴, 브로맨스, 밴드 음담악설, 워킹애프터유, 영보스 등 인기가수들이 다수 출연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생생 樂 페스티발'은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가 많지 않은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전북은행에서 매년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망할 판인데, 롯데홈쇼핑은 정부 눈치"

협력사들 '격앙'

"협력사들은 줄도산 일보 직전인데, 롯데홈쇼핑은 정부 눈치만 살피지 말라"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들이 25일 가처분신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95명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롯데홈쇼핑에 방송시간 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은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협력사 줄도산 대량해고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가처분소송으로 협력사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 '롯데홈쇼핑은 우리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한 협력사 대표는 집회 중 감정이 격앙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롯데홈쇼핑은 그룹내부 사정을 이유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가처분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하니까 롯데홈쇼핑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이러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협력사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뉴시스

도공 전북본부,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 캠페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25일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나눔 이벤트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물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벤트는 5톤 이상 대형화물차 100여대가 군집한 화물차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화물차 후부반사판을 무상으로 부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신호기 사용방법 교육 및 하이패스 단말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홍보를 병행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7월 현재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34%를 차지하는 등 화물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 김포 - 양양 노선 내달 25일까지 부정기편 운항

이스타항공이 김포-양양 노선을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부정기편으로 운항한다.

이스타항공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인바운드 고객들의 관광 편의와 강원도 국내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니즈를 바탕으로 김포-양양 노선 운항을 추진해왔다.

특히 김포-양양 노선은 양양국제공항이 속초와 인접해 있는 등 높은 접근성으로 포켓몬 GO 열풍과 함께 판매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양양 노선 운항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양양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포-양양 노선 특가는 최저 15,000원(편도 총액운임)부터 제공되며,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모바일웹(앱), 예약센터에서 예매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bhc, 시즈닝+소스 '커리퀸' 출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독특한 커리맛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치킨 '커리퀸'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커리퀸'은 젊은층 여성들이 선호하는 커리를 컨셉으로 한 제품으로, 20~30대 여성 취향 저격은 물론 bhc 연구소만의 기술력이 돋보인 시즈닝과 소스의 활용성을 높인 치킨 요리로 평가 받고 있다.

신제품 '커리퀸'은 얇게 입혀 튀겨낸 바삭한 치킨 위에 bhc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커리시즈닝'을 뿌려 독특하고 진한 커리향과 맛을 낸다. /뉴시스